

大 會 辭

尊敬하는 李 憲琦 勞動部長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參席하신 內外貴賓과 그리고 勤勞者와 事業主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第 20 回 産業安全大會를 舉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榮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항시 盡力하고 있는 政府當局과 關係者의 勞苦에 뜨거운 感謝를 드리며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生産과 建設에 邁進하시는 勤勞者와 事業主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깊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많은 逆境과 苦難을 겪으면서도 온 國民이 一致團結하여 이를 克服함으로써 놀라운 經濟成長과 國家發展을 이룩하였고 이제는 先進祖國의 創造를 위하여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國家發展과 經濟成長의 뒷면에는 産業災害로 因하여 수많은 勤勞者의 生命과 身體의 被害를 입었고 不幸한 家庭을 續出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企業은 企業대로 엄청난 財産上의 損失을 당해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發生한 産業災害를 살펴보면 7萬8百餘 事業場에서 災害者가 14萬2千餘名이나 發生하였습니다.

이들 被害者中 死亡者는 1千6百6拾餘名이고 身體障害者는 2萬1千餘名이나 되며 또 産業災害로 인한 經濟的 損失額은 1兆7百3拾5億원에 이르고 있으며 勤勞損失日數는 3千8百1拾7萬餘日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86年度의 産業災害 現況을 10年前인 '76年度와 比較해 보면 産業災害者 數는 約 1.5倍 增加하였으며 經濟的 損失額은 무려 17倍에 달하고 있는 바 産業災害로 인한 被害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立證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生産과 品質管理 그리고 經濟成長에 치중한 나머지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에 未洽했던 것이 事實입니다.

事業主나 勤勞者 공히 安全과 保健에 대하여 關心이 不足하였으며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投資는 물론 研究마저 不振하였음을 우리는 솔직히 是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産業災害를 減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事業主・勤勞者 그리고 政府의 一致된 關心과 努力이 要求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産業安全大會를 契機로 事業主는 事業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災害發生 要因을 事전에 除去하고 勤勞者들이 安全하고 快適한 作業環境속에서 生産活動에 專念할 수 있도록 産業災害豫防에 혼신의 努力을 傾注하여 勤勞者の 安全과 保健의 增進을 土臺로 生産管理에 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勤勞者는 事業主의 安全保健 施策에 적극 호응하여 作業의 安全을 기함은 물론 健康維持 增進에 스스로 努力해야 할 것이며 나의 安全이 나의 家庭을 지키고 나의 職場을 隆盛하게 하며 나아가서 國家發展에 獻身한다는 信念으로 産業災害豫防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政府는 事業場의 安全保健管理를 위한 活動을 적극 支援함은 물론 災害豫防에 必要的 새로운 技法과 對策을 開發 普及하는 등 廣範圍하고 적극적인 政策을 樹立 施行하여야 할 것입니다.

産業安全保健의 成果는 一時的인 行事나 行政의 指示에 의해서가 아니라 事業場에서 모두 스스로가 이에 參與하고 生活化할 때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事故와 疾病없는 밝은 職場, 밝은 社會, 밝은 國家로 빛나는 先進祖國이라는 金字塔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今般 第20回 産業安全強調期間을 맞이하여 事業主・勤勞者 및 政府, 나아가서는 온 國民이 産業災害를 激減시키는 劃期的인 契機가 되어 福祉社會 建設에 總力을 경주할 것을 다시한번 強調하면서 本大會를 開催함에 있어 아낌없는 後援을 하여 주신 政府當局과 關係者 여러분들의 勞苦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리면서 아울러 本大會에 參席하신 內外貴賓 및 여러분의 健康과 여러분이 營爲하시는 事業의 繁營을 眞心으로 祈願하면서 本大會辭를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7年 7月 1日

大韓産業安全協會
會長 金 淑 鉉